목 차

■ 설비투자 부진 원인과 활성화 과제

Executive Summary ····· 1

Ⅰ. 국내 설비투자 추이 ····· 4

Ⅱ. 설비투자 부진의 원인 ····· 6

Ⅲ. 향후 설비투자 전망 ····· 13

Ⅳ. 시사점과 투자 활성화 과제 ····· 16

< 참고 문헌 > ····· 16

■ HRI 경제 지표 ····· 19

설비투자 부진 원인과 활성화 과제

Ⅰ. 국내 설비투자 추이

○ **(추세적 측면)** 국내 설비투자는 1986~90년의 기간 동안에 연평균 18.1%의 증가세를 보였으나, 최근(2001~2005년)에는 1.2%로 증가세가 크게 둔화됨

○ **(경제 성장 단계 측면)** 국내 설비투자 증가율은 선진국들이 1만 달러에서 2만 달러 진입 시기에 기록한 설비투자 증가율 수준에 크게 못 미침

○ **(구조적 측면)** 국내 설비투자의 구조를 보면 중소기업, 내수기업, 설비확장 투자의 부진 양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남

Ⅱ. 설비투자 부진의 원인

○ **(투자 여건 개선 미흡)** 주력 산업 성숙, 글로벌 경쟁 격화 등에 의한 투자 수익률의 저하, 고비용 저효율 경제 구조 지속, 선진국과 동아시아 경쟁국보다 높은 세부담 등 투자 여건이 악화됨

○ **(경기 부진 지속)** 2000년 이후 내수 경기가 하강 국면을 보이면서「투자 침체 → 고용 악화 → 근로자 구매력 약화 → 소비 시장 부진 → 투자 침체」의 악순환 고리가 지속되고 있음

○ **(경영 패러다임 변화)** 외환위기 이후 구조조정, 외국인의 국내 주식 보유 비중 증가로 배당 확대 요구, 경영권 위협 등이 빈번해지면서 기업들이 장기성 투자보다는 현금 유동성 확보, 배당 증가에 투자 여력을 소진

○ **(反기업 정서)** 경제 민주화 과정에서 기업의 부정적 측면 강조, 우리 사회 내 평등의식 등으로 親기업 정서가 확산되지 못함

○ **(정부 규제 상존)** 정부도 투자 활성화 정책을 펼치고 있으나 출자총액제한제 등 투자 관련 핵심 규제 상존, 복잡한 행정 절차 등으로 정책의 실효성이 미흡함

Ⅲ. 향후 설비투자 전망

○ **(전체 전망)** 국내기계수주 증가세 지속, 설비투자 조정압력 증대 등에도 불구하고, 원자재 가격 상승, 환율 하락 등으로 기업 채산성이 악화되고 있어 투자 회복 속도는 빠르지 않을 예상임

○ **(업종별 전망)** 최근의 전반적인 설비투자 회복에도 불구하고, 자동차 부문을 제외한 대부분의 업종은 여전히 생산 수준에 비해서 설비 능력에 여유가 있으며 심지어는 설비 과잉 현상까지 나타내고 있음

Ⅳ. 시사점과 투자 활성화 과제

○ **(시사점)** 투자 부진은 단기적으로는 경기 양극화를 심화시키며, 장기적으로는 성장 잠재력 약화를 초래하여 선진국 진입을 방해함

○ **투자 활성화 과제**

- **투자 정책을 최우선 순위로 확립** : 선진국들의 경험상 국민소득 2만 달러를 달성하려면 기업의 투자 활성화 등 경제의 효율과 성장을 중시하는 정책을 추진해야 함

- **산업경쟁력 강화 투자 유인** : 자동화 설비 등 생산성 향상, 전통 제조업의 IT 접목 신제품 개발 촉진 정책이 요구됨

- **차세대 신산업 분야의 시장 형성 촉진** : 산학연 협력, 정보-관련 업종 대표 기업간 공동 프로젝트 추진 등 적극적 기반 기술 개발 정책과, 신산업 관련 표준 플랫폼 마련 등과 같은 기술 인프라 확충 정책 등이 필요함

- **유망 산업 육성과 관련된 정책 실효성 제고** : 대기업을 경제 발전의 동반자로 인식하는 정책 풍토를 확립해 민관 공조의 실효성 있는 유망 산업 육성 정책이 절실함

- **기업 규제 철폐** : 투자 관련 행정 절차 간소화, 출총제 등 대기업 관련 규제 철폐, 지역 균형 발전 차원에서 수도권 규제의 합리적 완화 등이 요구됨

- **反기업 정서 해소** : 기업 활동의 이윤 창출 목적과 기업가의 소유권 보호 중시, 사외이사 및 이사회 역할에 대한 정책 및 일반 인식 개선, 경제 교육 강화 등이 필요함

설비투자 부진 원인과 활성화 과제

Ⅰ. 국내 설비투자 추이

□ **국내 설비투자는 추세적, 경제 성장 단계 측면에서 부진한 것으로 분석되며, 구조적으로도 중소기업, 내수, 생산 능력 확충의 투자 부진이 두드러짐**

○ **(추세적 측면) 국내 설비투자는 1986~90년의 기간 동안에 연평균 18.1%의 증가세를 보였으나, 최근(2001~2005년)에는 1.2%로 증가세가 크게 둔화됨**

- 이에 따라 설비투자/GDP 비중도 같은 기간 14.1%에서 10.2%로 하락함

< 국내 설비투자 추이>

(%)

	1981~85	1986~90	1991~1995	1996~2000	2001~2005
설비투자 증가율	6.6	18.1	11.9	5.5	1.2
설비투자 / GDP	12.2	14.1	13.5	11.5	10.2

자료 : 한국은행.

○ **(경제 성장 단계 측면) 국내 설비투자 증가율은 선진국들이 1만 달러에서 2만 달러 진입 시기에 기록한 설비투자 증가율 수준에 크게 못 미침**

- 1인당 국민소득이 1만 달러에서 2만 달러로 가는 동안 일본과 싱가포르는 8~10%의 설비투자 증가율을 기록함

- 반면 1995년 1만 달러에 진입한 우리나라의 경우 설비투자 증가율은 1996~2005년 3.4%로 경쟁국의 절반 수준에 머물러 있음

< 주요국의 경제 성장 단계별(1만 달러→2만 달러) 설비투자 추이 비교 >

(%)

	미국	영국	독일	일본	싱가폴	한국
경제 성장률	3.2	2.4	2.3	3.4	9.3	4.5
설비투자 증가율	4.8	4.5	4.1	8.8	10.8	3.4
1인당 국민소득 : 1만 달러→2만 달러	10년 (78→88)	9년 (87→96)	11년 (79→90)	6년 (81→87)	5년 (89→94)	? (95→?)

자료 : 한국은행, '최근 설비투자 동향과 특징', 2003.

주 : 성장률과 설비투자 증가율은 연평균 기준임. 한국의 설비투자 증가율은 1996~2005년 연평균이며, 2000년 가격 기준임.

○ **(구조적 측면) 국내 설비투자의 구조를 보면 중소기업, 내수기업, 설비확장 투자의 부진 양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남**

- 대기업은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는 반면, 중소기업은 큰 폭의 감소율 기록

- 내수 기업의 투자 비중이 높아지고 있으나 여전히 수출 기업이 설비 투자를 주도, 2006년에는 내수 기업 투자 다시 감소 예상

- 경기 회복 기대가 약화되면서 기업들이 설비 능력 확대보다는 기존 설비 합리화에 치중, 2006년 연구 개발 투자 감소할 전망

< 최근 국내 기업의 설비투자 구조 >

			비중 (%)			증감률 (%)	
			2004	2005	2006 (계획)	2005	2006 (계획)
전 산 업 대비	제조업		61.7	60.3	57.5	7.4	0.1
	비제조업		38.3	39.7	42.5	13.7	12.4
제조업 대비	기업규모별	대기업	92.8	93.5	94.7	8.2	1.3
		중소기업	7.2	6.5	5.3	-2.3	-16.7
	내외수별	수출기업	74.9	67.3	68.0	-3.3	1.1
		내수기업	25.1	32.7	32.0	39.5	-2.0
투자 동기별 (전산업 대비)	생산능력 확충		71.1	69.0	68.6	4.2	-0.5
		설비확장	43.3	38.2	37.5	-5.3	-1.8
	합리화		18.8	18.4	19.8	5.6	7.7
		유지보수	15.6	15.7	17.1	8.4	9.0
		자동화	2.2	1.7	1.7	-17.7	-1.6
		에너지절약	0.9	1.0	1.1	15.5	3.0
	연구개발		3.8	4.4	4.2	25.5	-4.3

자료 : 산업은행, 「2006년 설비투자 계획」, 2005. 12.
주 : 증가율은 전년대비 기준임.

Ⅱ. 설비투자 부진의 원인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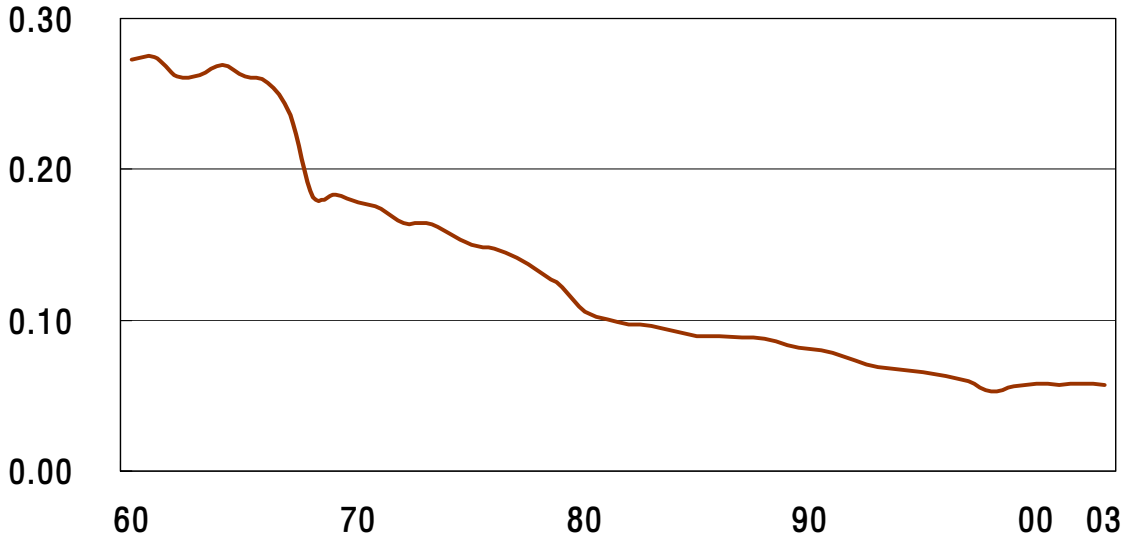
□ 투자 여건 악화, 경기 부진, 경영 패러다임 변화, 반 기업 정서, 정부 정책 실패 등 총체적 측면에서 파악할 수 있음

1. 투자 여건 악화

○ (투자수익률 저하) 기존 주력 산업의 성숙화, 신흥 공업국들과의 경쟁 격화 등으로 투자 수익률이 저하됨

- 기존 주력 산업인 중화학 제조업은 산업 성숙기에 진입한 지 오래이기 때문에 대규모 투자가 이루어지기 어려움
- 한편 IT 등 신 산업도 중국 등과 같은 개도국들의 빠른 시장 진입으로 경쟁이 격화되어 큰 폭의 수익성 확보가 어려워짐
- 이에 따라 우리나라의 자본 한계생산성은 60년대 약 0.25, 70년대 0.15, 80년대 0.09에 이어, 2000년대 이후 0.06으로 하락세를 지속함

< 자본의 한계생산성 추이 >



자료 : 한국은행.

○ (경제 여건 악화) 고비용 저효율 경제 구조 심화

- 고임금, 고주택비, 고물류비, 고에너지비 등의 고비용 구조와, 저생산성에 따르는 저효율 경제 구조가 지속
  - ·고임금 : 제조업 시간당 임금상승률(2001~04년)은 한국 15.4%로, 중국 15.3%, 싱가포르 3.0%, 태국 1.1%, 일본 0.6%, 대만 0.3% 등보다 월등히 높음
  - ·고주택비 : 한국의 국민소득 대비 주거비 부담은 23.1%로 선진국 평균인 16.0%보다 7.1p%나 높음
  - ·고물류비 : 한국의 매출액 대비 물류비 비중은 9.9%, 미국 7.5%, 일본 5.0%
  - ·고에너지비 : 2004년 한국의 에너지 소비 효율성 평가지수(투입 에너지량/GDP 1000달러 당)는 0.30으로, OECD 평균인 0.19를 크게 상회
  - ·저생산성 : 한국 노동생산성은 G7 국가 평균의 63% 수준에 불과

- 한국 무역협회에 따르면 국내 제조업체들의 공장 해외 이전은 비용 증가, 노동력 확보 애로, 노사 문제·규제 등 국내 투자 여건 악화 때문으로 나타남

< 국내 제조업체들의 공장 해외 이전 사유 (2003) >

(%)

비용절감	노동력 확보	해외시장 확보	노사문제, 규제 등	현지기업과의 제휴	기타
28.6	20.9	17.9	10.3	6.6	15.7

자료 : 한국무역협회.

- 특히 최근에 들어 중소기업의 해외 투자 증가세가 대기업에 비해 두드러지고 있으며 특히 對중국 투자 비중이 크게 증가함

< 기업 규모별 제조업의 해외 투자 현황 >

(단위: 10억 원)

기간	중소기업			대기업		
	전체	對중국	對중국 비중	전체	對중국	對중국 비중
1990~99	249	123	49.5	879	195	22.2
2000~04	848	632	74.5	1018	261	25.7
	(241%)	(414%)	(25.0%p)	(16%)	(34%)	3.5%p

자료 : 임경묵, '설비투자 추이 분석 및 시사점', KDI, 2005.
주 : 기간중 평균이며, ( )는 1990~99년 기간 대비 2000~04년 기간 증가율 및 증가폭임.

○ **(높은 세 부담) 한국은 GDP 대비 법인의 세 부담 뿐 아니라 평균유효법인세율 등 실질적인 법인의 세 부담이 선진국과 아시아 국가들보다 높음**

- **높은 GDP 대비 법인의 세 부담** : GDP 대비 법인의 세 부담이 선진국은 점차 하락하고 있으나 최근 한국은 오히려 증가하고 있음
  - ·OECD 평균 : 1970년대 이후 2000년까지 법인세 부담이 지속적으로 증가해 왔으나 2001년부터 하락하고 있음
  - ·미국 : 1970년 3.7%, 2000년 2%대를 유지하다가 2001년에는 1.9%까지 하락함
  - ·일본 : 1970년 5.3%에서 1990년까지 OECD 최고 수준인 6.5%까지 상승하다가 1995년 4.2%, 2000년 3.7%, 2002년에는 3.2%까지 하락함
  - ·한국 : 1980년 2.0%에서 2000년 3.7%까지 증가하였으며 2001년에는 잠시 3.3%까지 하락하였으나 2002년 다시 3.6%로 상승하여, 세계적인 법인의 세 부담 하락 추세에 역행하고 있음

- **높은 영업이익 대비 법인세 부담** : 한국의 법인기업 영업이익률/GDP 비중은 선진국보다 낮은 반면, 법인세/영업이익 비중은 오히려 선진국보다 높은 수준임
  - ·GDP 대비 영업이익 비율 : 한국의 GDP 대비 영업이익 비율은 2001년 14.3%로 미국 20.7%, 이탈리아 23.1%에 비해서는 매우 낮은 수준이며 독일 18.1%, 영국 16.3%, 프랑스 16.2%에 비해서도 낮음
  - ·영업이익 대비 법인세 비율 : 반면 한국의 영업이익 대비 법인세 비율은 1998년 20.4%에서 1999년 17.3%로 감소하였으나 2001년에 21.5%로 상승하였으며, 이는 프랑스 19.3%, 캐나다 11.2% 보다 높은 수준이며 독일의 1.6%보다는 무려 19.9%p 높은 수준임

- **동아시아 경쟁국들보다 높은 평균 유효 법인세율** : 한국 법인 기업의 평균 유효 법인세율은 대만, 싱가포르 등 특정 동아시아국가들보다 높음
  - ·영업이익 기준 평균 유효 법인세율(2003년) : 한국은 24.3%로, 대만 10.9%, 싱가포르 14.9%, 태국 17.9%, 홍콩 19.1%보다 4%p 이상 높게 나타남
  - ·법인세 차감전 순이익 기준 평균 유효 법인세율(2003년) : 한국은 26.9%로 대만 12.7%, 싱가포르 17.4%, 태국 20.5%, 홍콩 20.8%보다 월등히 높은 수준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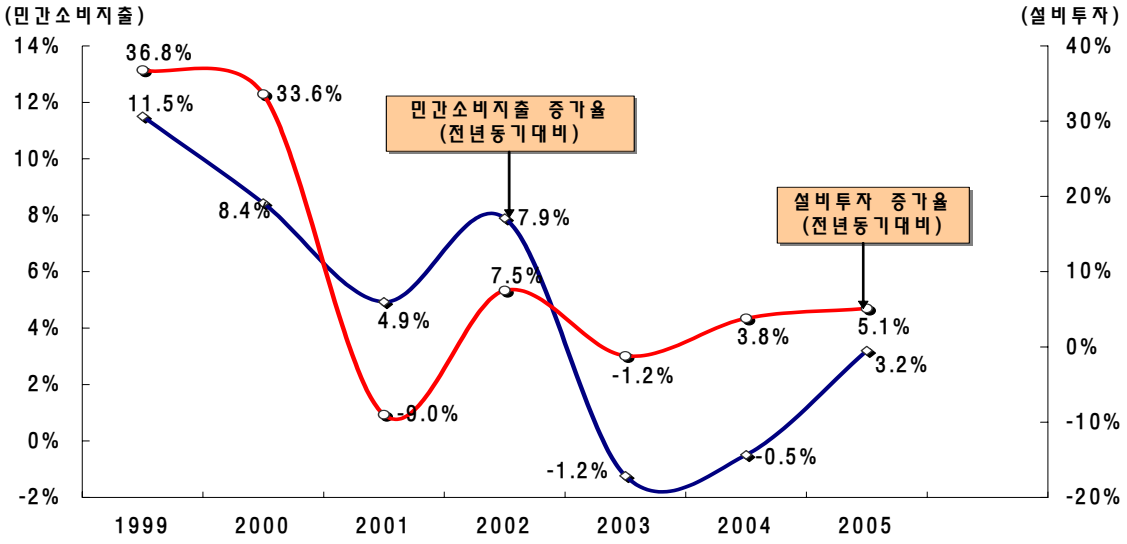
2. 경기 부진 지속

○ **(내수 경기 침체 지속에 따른 투자 위축) 2000년 이후 내수 경기가 하강 국면을 보이면서 설비투자 부진이 지속**

- 1999~2000년 30%를 상회하던 설비투자 증가율은 민간소비 감소세가 지속되면서 2005년에는 5.1%에 그치고 있음
  · 특히 「투자 침체 → 고용 악화 → 근로자 구매력 약화 → 소비 시장 부진 → 투자 침체」의 악순환 고리가 형성 될 우려가 높아지고 있음

- 실제로 국내 기업들은 국내 수요 부진(43.3%)과 그에 따른 수익성 저하(12.8%)를 설비투자를 가로 막는 주요 요인으로 지적함[1)]
  · 특히 내수 부진과 수출 부진을 애로 요인이라고 응답한 비율을 살펴보면, 2005년 상반기 각각 35.6% 및 5.9%에서 하반기에는 35.7% 및 7.6%로 응답하고 있어, 내수 경기 부진이 지속되는 가운데 수출 경기마저 악화됨

< 민간소비 및 설비투자 증가율 추이 >



자료 : 한국은행.

1) 산업은행, 「2006년 설비투자 계획」, 2005. 12.

3. 경영 패러다임 변화

○ **(기업 경영 전략 변화) 외환위기 이후 구조조정, 외국인의 국내 주식 보유 비중 증가로 배당 증가 요구, 경영권 위협 등이 빈번해지면서 기업들이 장기성 투자 보다는 현금 유동성 확보, 배당 증가에 투자 여력을 소진**

- IMF 기간의 투자 실패 경험, 정부의 엄격한 부채비율 축소 등 대기업 구조조정 추진, 외국인 지분 확대 등으로 기업들이 대규모 투자에 신중한 모습을 나타냄

- 2000년 이후 기업의 수익성(매출액 순이익률 및 당기순이익)이 개선되고 있으나 배당, 현금 유동성 확보, 재무 구조 개선 등에 자원이 투입됨
  · 투자/현금 흐름이 2000년 94.5%에서 2004년 63.4%로 축소

- 특히 외국인의 국내 주식 투자 증가[2]로 주주 중심 경영이 확산되면서 2000년에 5% 수준에 머물던 배당률이 2004년에 10%를 상회하는 수준으로 증가함

< 제조업의 주요 경영 지표 >

	2000	2001	2002	2003	2004
매출액 순이익률 (%)	-1.4	0.2	3.5	4.3	5.8
당기순이익 (조 원)	-7.4	0.8	19.3	27.5	43.4
현금성 자산 (조 원)	48.9	45.6	56.8	69.5	75.5
부채비율 (%)	185.8	167.6	127.3	117.8	107.4
배당률 (%)	5.2	4.9	5.4	8.3	10.2
투자/현금흐름	94.5%	77.9	56.5	67.6	63.4

자료 : 산업은행, 한국은행.
주 : 투자/현금흐름 비율은 상장기업 기준임(한은).

2) 10대 그룹의 외국인 주식 보유 비중은 1998년 30.2%에서 2004년 50.8%로 급증함.

4. 反기업 정서

○ **(反기업 정서 팽배) 경제 민주화 과정에서의 기업의 부정적 측면 강조, 우리 사회 내 평등 의식 등으로 親기업 정서가 확산되지 못함**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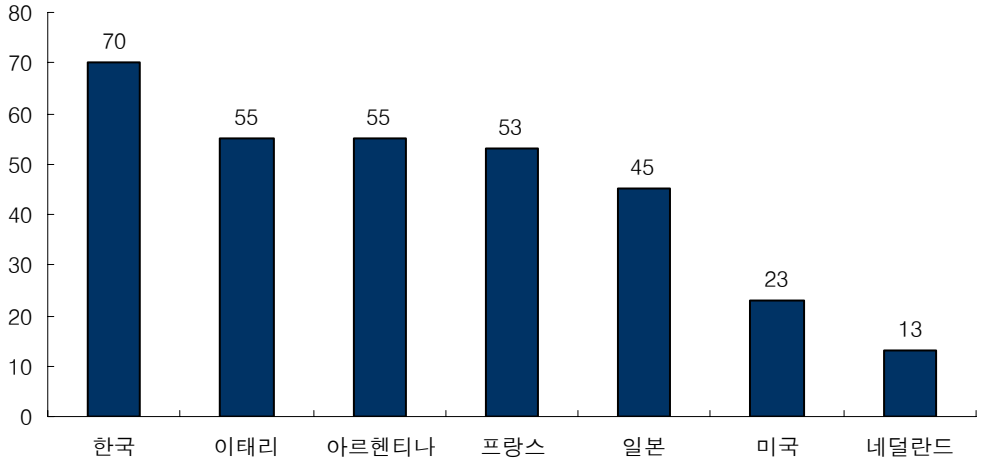
- 기업 활동의 결정적 동기는 이윤이며, 그보다 더욱 중요한 것이 소유의 문제임

- 그러나 우리 사회에는 反기업 정서가 팽배하고, 정부도 소유 지배 괴리도 공표, 계열금융기관 의결권 축소 등 지나친 소유 제한 재벌 개혁을 추진하고 있음

- 따라서 대기업 입장에서는 정부 정책에 대한 경계감, 적대적 M&A 불안감 등으로 투자 심리가 살아나기 어려우며, 가진 것을 지키는데 우선순위를 두게 됨

- 기업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심는 정부 정책 등으로 국민들의 전반적인 반기업 정서가 사라지지 않고 있는 상황임
  - 기업호감도 지수 : 44.4('04.12)→ 47.0('05.6)→ 48.5(('05.12)
    (국민 2천명 대상으로 대한상의·현대硏 조사, 100점 만점에 50점이면 보통)
  - Accenture Survey에 의하면 국내 反기업 정서는 세계 최고 수준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됨

< 주요 국가의 반기업 정서 >



자료 : Accenture Survey 2001.
주 : 수치가 높을수록 기업에 대해 적대적임.

5. 정부 규제 상존

○ 정부도 다양한 투자 활성화 정책을 펼치고 있으나, 핵심 규제가 상존하여 투자 활성화 정책의 실효성이 미흡함

- 정부도 투자 촉진을 유도하려 하고, 기업도 투자하려 하지만 성역화 되어 있는 핵심 규제들이 투자의 결정적 걸림돌로 작용

- 무엇보다 인허가 등 복잡한 행정 절차가 문제임
  - 한국의 창업 절차는 12단계로 캐나다 및 호주의 2단계, 홍콩의 5단계 등에 비해 훨씬 복잡한 것으로 평가됨
  - 한편 창업에 필요한 시간도 22일로 호주 2일, 덴마크 4일, 홍콩 11일 등에 비해 오랜 기간이 소요됨(세계은행, Doing Business 2004)

- 특히 국내만 존재하는 규제 제도인 기업에 대한 출자총액규제로 기업들의 신사업 진출이나 신규 투자가 어려운 실정임
  - 정부가 특정산업을 열거해 예외로 인정해 주는 것은 시장원리가 아닌 계획주의적 발상
  - 경쟁국기업들이 일반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M&A를 통한 신사업 진출도 제약

- 대기업 집단 지정 제도의 존재 자체가 일반국민들에게 기업의 투자활동에 대해 계열사수 확장, 경제력 집중 등의 부정적 인식을 유발하고 있음

- 또한 선진국들도 실효성이 없어 폐지한 수도권 규제 때문에 기업투자가 봉쇄되거나 차질 발생

- 투자지원제도의 실효성 미흡
  -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의 6개월 단위의 단기 운용 및 수도권 지역 투자에 대한 적용 배제 등

Ⅲ. 향후 설비투자 전망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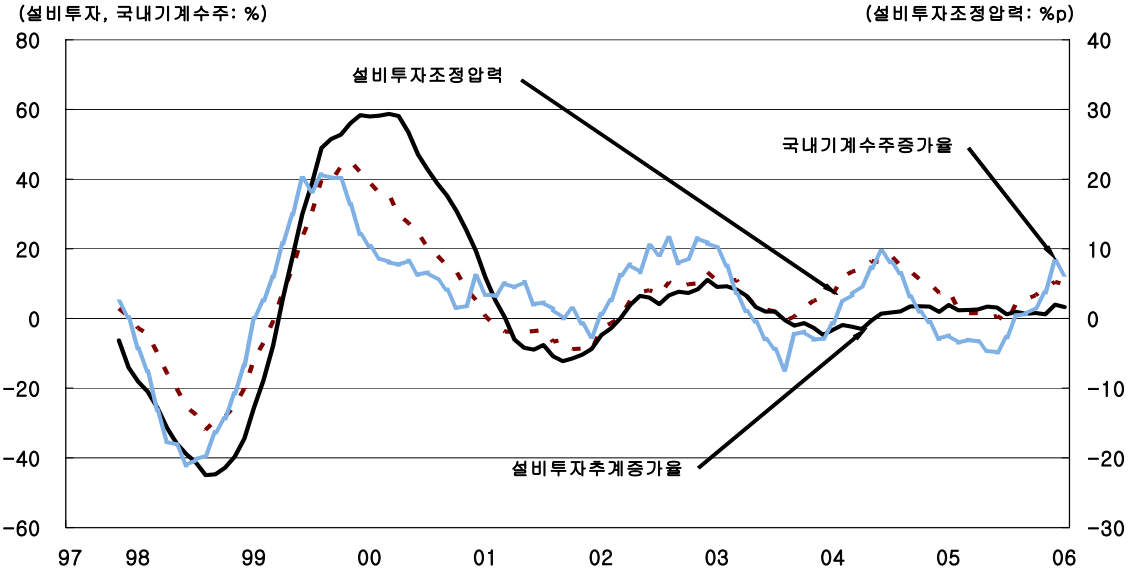
□ 선행 지표들이 개선되고 있어 전체적으로 설비투자 회복 가능성이 엿보이나, 업종별로 볼 때 자동차 등 일부 업종을 제외하고는 여전히 설비투자 회복이 지연될 것으로 분석됨

1. 전체 설비투자 전망

○ 투자 선행 지표인 설비투자 조정압력 및 국내기계수주 증가율의 상승세가 지속되어 설비투자 회복이 가시화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으나, 투자 저해 요인들이 산재해 있어 투자 회복이 큰 폭으로 이루어지기 어려울 전망임

- **설비투자 선행 지표 개선** : 국내기계수주는 2005년 하반기 이후 개선되고 있고, 설비투자조정압력도 기준치 8%p에 미치지 못하지만 완만하게 상승중임
  - · 국내기계수주 증가율 (전년동월비) : -9.7% ('05.1월~6월) → 14.5% ('05.7월~'06.1월)
  - · 설비투자조정압력 : -0.3%p ('05.1/4) → 1.0%p (2/4) → 4.5%p (3/4) → 5.1%p ('05.10월~'06.1월)

< 설비투자 및 선행 지표 추이 >



자료: 통계청.

주: 1) 위 그래프들은 전년동월대비 증가율의 6개월 이동 평균임
2) 국내기계수주는 선박을 제외한 명목 금액임
3) 설비투자 조정압력 = 생산증가율 - 생산능력증가율.

- **투자 저해 요인 상존으로 심리 위축 우려** : 고유가 등으로 원자재가 상승이 지속되는 가운데, 내수 회복세 미약, 환율 하락에 따르는 수출 둔화 등으로 기업 채산성이 악화되고 있어, 투자 심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됨
  - **기업 채산성 악화** : 한은의 2월 채산성 BSI는 전월과 동일한 85를 기록하고 있어, 채산성이 호전되었다고 응답한 기업보다 악화되었다고 응답한 기업이 월등히 많은 것으로 나타남
  - 2006년 2월 원자재 구입 가격 BSI는 109, 제품 판매 가격 BSI는 89를 기록함
    ※ 원자재 구입 가격 BSI 및 제품 판매 가격 BSI는, 「상승」응답업체 구성비(%) −「하락」응답업체 구성비(%) + 100로 계산됨.

< 제조업 채산성 BSI 추이 >

	05. 6월	9월	12월	06.1월	2월
채산성 BSI	81	84	86	85	85
원자재 구입 가격 BSI	110	117	111	109	109
제품 판매 가격 BSI	91	94	94	92	89

자료 : 한국은행 기업경기조사.
주 : 05.12월부터 표본 및 편제방식이 변경된 개편 수치임.

  - **투자 심리의 위축** : 한은 BSI는 최근에 들어 개선 추세를 나타내고 있으나, 여전히 기준치인 100을 넘지 못함
    ※ 단 설문 대상 업체의 대기업 비중이 높은 전경련 BSI는 3월에 118.9로 큰 폭의 상승세를 기록함

< 투자 심리 지표 추이 >

(전년 동월 대비, %)

	2004	2005				2006
	12월	3월	6월	9월	12월	3월
한은 BSI (업황 전망)	71	85	83	83	85	94
전경련 BSI (종합경기 전망)	82.2	119.2	105.1	111.4	103.8	118.9

자료 : 한국은행, 전경련.
주 : 전산업 기준임.

2. 산업별 전망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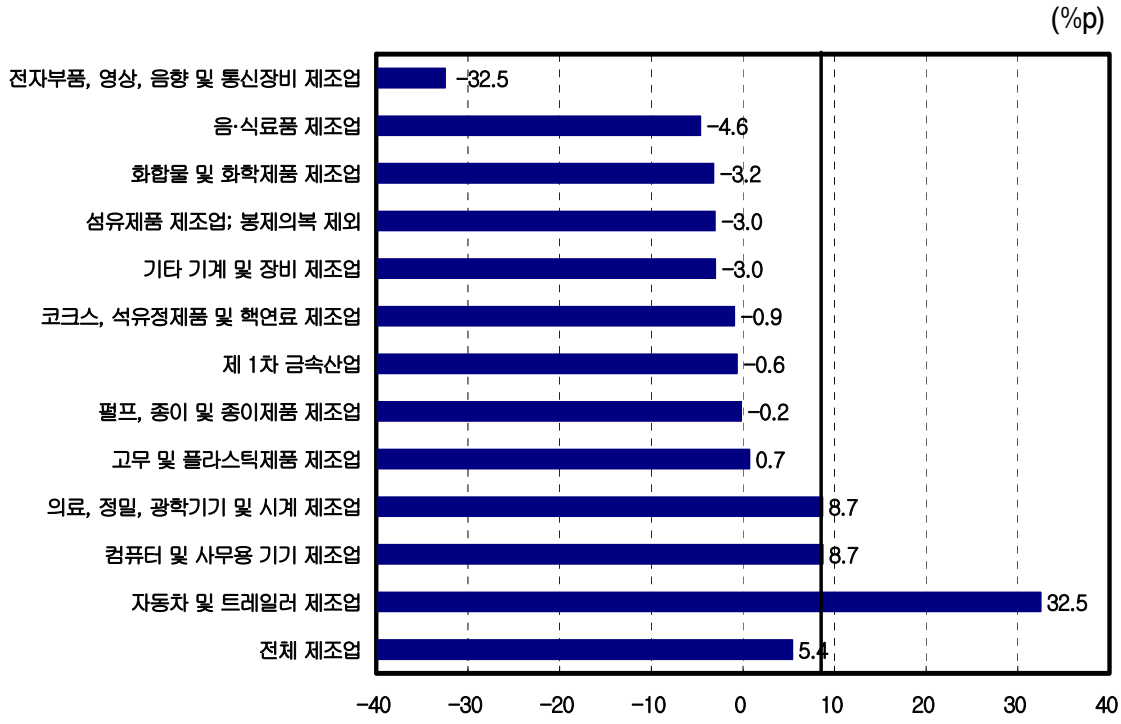
○ **최근의 전반적인 설비투자 회복에도 불구하고, 자동차 부문을 제외한 대부분의 업종은 여전히 생산 수준에 비해서 설비 능력에 여유가 있으며 심지어는 설비 과잉 현상까지 나타내고 있음**

- 자동차 부문의 경우 수출 호조에 따르는 생산 급증으로 설비 능력이 이를 뒤따라가지 못하는 현상이 나타나, 설비투자 확충이 시급한 것으로 판단됨

- 세계 IT 경기가 회복되고 있다고는 하지만, 국내 IT 부문의 설비투자 조정압력은 여전히 미약한 수준임

- 한편 경공업 부문은 대부분의 업종에서 설비 투자 확충 기준인 8%p는 물론 0%에도 미치지 못하는 설비 과잉 현상을 나타내고 있음

< 주요 업종별 설비투자 조정 압력 (2005년 11월~2006년 1월) >



자료: 통계청.

주: 설비투자 조정 압력 = 생산증가율 - 생산능력증가율.

Ⅳ. 시사점과 투자 활성화 과제

1. 시사점

□ 투자 부진은 단기적으로는 경기 양극화를 심화시키며, 장기적으로는 성장 잠재력 약화를 초래함

○ 단기적으로 경기 양극화를 심화시킴

- 기업의 투자 부진은 고용 상황 부진을 동반하기 때문에, 이에 따라 가계의 근로소득 감소(가계의 구매력 감소)가 내수 침체를 심화시키는 악순환이 되풀이 됨

○ 장기적으로 성장잠재력 약화에 따르는 선진국 진입을 방해

- 자본 확충의 실패는 생산 능력 저하로 이어지며, 경제의 성장잠재력을 약화시켜 저성장-고실업 구조가 고착화 됨

2. 투자 활성화 과제

○ 투자 정책을 최우선 순위로 확립

- 선진국 경험을 종합 고려할 때 국민소득 2만 달러를 달성하려면 기업의 투자 활성화 등 경제의 효율과 성장을 중시하는 정책을 추진해야 함
  ·1만 달러 시대에 형평주의 정책을 펼친 남미 국가는 더 이상 성장하지 못하고 저성장국으로 중도 탈락

○ 산업경쟁력 강화 투자 유인

- 자동화설비 등 생산성 향상 설비투자 촉진

- 전통 제조업의 IT 접목 신제품 개발 촉진

○ 차세대 신산업 분야의 시장 형성 촉진

- 기반기술 개발(산학연 협력, 정보-관련 업종 대표 기업간 공동 프로젝트 추진 등), 기술 인프라 확충(신산업 관련 표준 플랫폼 마련 등), 보조금 지원 허용, 특소세 부과 제외 등

○ 유망 산업 육성과 관련된 정책 실효성 제고

- 대규모 프로젝트 투자, 특히 신산업분야의 경우 대기업그룹 중심으로 투자가 이뤄질 수밖에 없음
- 따라서 대기업을 경제발전의 동반자로 인식하는 정책 풍토를 확립해 대기업의 기를 북돋아 줄 필요

○ 기업 규제 철폐

- 투자를 위한 행정 절차 간소화
- 출자총액제한제도 등 기업 관련 규제 철폐
- 지역 균형 발전 차원에서 수도권 규제 합리적 완화

○ 反기업 정서 해소

- 기업 활동의 이윤 창출 목적과 기업가의 소유권 보호 중시
- 사외이사 및 이사회 역할에 대한 정책 및 일반 인식 개선
  ・견제와 감시기능 등 negative 위주 → 경영 전략 설정, 투자 의사 결정에 대한 조언 등 positive 위주 (美 기업사외이사의 대부분이 전・현직 CEO 출신)
- 초, 중, 고 정규 교육 과정에서 기업의 긍정적 역할에 대한 교육을 강화 HRI

유병규 경제본부장 (bkyoo@hri.co.kr) ☎ 02-3669-4032
주원 연구위원 (juwon@hri.co.kr) ☎ 02-3669-4030

< 參考文獻 >

- 대한상공회의소・현대경제연구원, '기업호감도 조사' 각호.

- 박기백・김진, '법인세 부담 연구 - 미시자료를 중심으로' 한국조세연구원, 2004.

- 임경묵, '설비투자 추이 분석 및 시사점', KDI, 2005.

- 전국경제인연합회, '기업경기조사' 각호.

-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(http://ecos.bok.or.kr).

- 한국무역협회 수출입 통계 (http://stat.kita.net/main/stat/main.jsp).

- 한국산업은행, '2006년 설비투자 계획', 2005.

- 한국은행, '최근 설비투자 동향과 특징', 2003.

- 통계청 KOSIS (http://kosis.nso.go.kr).

- Accenture Survey 2001.

- World Bank, Doing Business in 2004.

- Maurice Obstfeld and Kenneth Rogoff, Foundation of International Macroeconomics, The MIT Press, 1996.

- Arnold C. Harbinger, "A Vision of the Growth Process," *American Economic Review*, 1998.

HRI 經濟 指標

主要 經濟 指標 推移와 展望

주요 경제 지표 추이와 전망								
			2000	2001	2002	2003	2004(P)	2005(P)	2006(E)
국민계정	경제성장률 (%)		8.5	3.8	7.0	3.1	4.6	4.0	4.5
	최종소비지출 (%)		7.1	4.9	7.6	-0.3	0.2	-	3.6
	민간소비 (%)		8.4	4.9	7.9	-1.2	-0.5	3.2	3.5
	총고정자본형성 (%)		12.2	-0.2	6.6	4.0	1.9	-	3.1
	건설투자 (%)		-0.7	6.0	5.3	7.9	1.1	0.3	1.5
	설비투자 (%)		33.6	-9.0	7.5	-1.2	3.8	5.1	5.5
대외거래	경상수지 (억 $)		122	80	54	119	282	166	80
	통관기준	무역수지 (억 $)	118	93	103	150	294	232	120
		수출 (억 $)	1,723	1,504	1,625	1,938	2,538	2,844	3,120
		증가율 (%)	(19.9)	(-12.7)	(8.0)	(19.3)	(31.0)	(12.0)	(9.6)
		수입 (억 $)	1,605	1,411	1,521	1,788	2,245	2,612	3,000
		증가율 (%)	(34.0)	(-12.1)	(7.8)	(17.6)	(25.5)	(16.4)	(14.8)
기타	소비자물가 (평균, %)		2.3	4.1	2.7	3.6	3.6	2.7	3.2
	실업률 (%)		4.1	3.8	3.1	3.4	3.7	3.7	3.5
금융	원/$ 환율 (평균, 원)		1,131	1,291	1,253	1,192	1,145	1,024	980
	국고채금리 (평균, %)		8.3	5.7	5.8	4.6	4.1	4.3	4.6

주: 2005년 국민 계정은 한은 속보치 기준이며, 최종소비지출 및 총고정자본형성은 미발표됨.